“총보다 무서운 개발”… 노루 최대 위기

개체수 회복되나 했지만 작년 3500마리로 최저치
서식지 파괴·들개 습격·로드킬 등 무방비 노출

제주 노루에게 총보다 무서운 건 ‘난개발’이었다. 포획 금지로 총성은 멈췄지만, 무분별한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들개 습격과 로드킬에 무방비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수는 3500마리로 전년인 2019년 4400마리에 비해 900마리(20.4%)나 줄었다. 이는 개체수가 가장 낮았던 2018년 3900마리보다 적은 수치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7월 총기 포획이 가능한 ‘유해 야생동물’에서 노루를 제외시켰다. 2009년 1만2800마리에 이르던 노루가 무차별적인 포획으로 2015년 7600마리, 2016년 6200마리. 2017년 5700마리, 2018년 3900마리까지 떨어지자 부랴부랴 총성을 멈추게 한 것이다. 이후 다음해인 2019년 4400마리로 늘어나면서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포획 금지가 유일한 답이 아니었다.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개체수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더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먼저 살 곳을 잃은 노루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기 위해 ‘대이동’을 벌이면서 자동차에 치이는 로드킬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해마다 140여마리가 도로 위에서 죽은 반면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2018년과 2019년에는 오히려 각각 440건, 557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들개 습격도 문제로 꼽힌다. 유기된 반려견들이 야생화돼 상대적으로 공격에 취약한 암컷 혹은 새끼 노루를 노리는 경우가 늘어서다. 특히 2013년 3027마리에서 지난해 7047마리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유기동물의 숫자는 앞으로 들개로 인한 피해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관계자는 “중산간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건축물 반경 안에 노루가 접근을 못한다”며 “이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노루가 늘어났고, 그만큼 로드킬을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들개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공격으로 사냥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암컷과 어린 노루의 피해가 많다. 최근 국립공원 내 들개를 포획·관찰했는데, 대부분 버려진 반려견이었다”며 “앞으로 서식지 파괴로 인한 문제보다는 들개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루의 포획 금지는 적정 개체수인 6100마리를 회복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서귀포시는 30일 시민 영상크리에이터 5개팀을 선정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중다이버팀의 영상 캡처. 사진=서귀포시 제공

시민 유튜버가 전하는 생생한 서귀포 소식

서귀포시 영상크리에이터 선정
관광·음식·귀농 등 채널 다양

서귀포시민 유튜버가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서귀포 소식을 전한다.

서귀포시는 시민참여를 통한 시 공식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최근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를 모집, 16개팀이 응모한 가운데 최종 5팀을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수중다이버, 맘유튜버, 제주문화와 농촌을 배우고 알리는 청년농부들, 먹거리와 핫플레이스에 특화된 젊은 유튜버,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튜버들이다.

이들의 관심사도 문섬, 섶섬 등의 수중자연은 물론 사계절 여행·체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주 농촌·역사·전통음식 체험 등 다채롭다. 풍성한 서귀포의 먹거리와 주거지, 관광지 소개와 함께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분야도 시민의 시각에서 다룬다.

오철종 공보과장은 “서귀포영상크리에이터들은 오는 4월 1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부서에서 요청하는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소정의 영상제작료 지원 및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연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금탁기자haru@ihalla.com

“재활용 자원 모아 10배 보상 받으세요”

도, 회수 통합보상제 이벤트
매월 넷째 주 일요일 등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월 넷째 주 일요일과 환경의 날 등 환경관련 기념일에 기존 보상에서 10배를 보상하는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통합보상제 이벤트’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재활용 도움센터 이용자들에게 폐건전지, 캔, 종이팩, 투명 페트병 4개 품목에 대해 1kg에 종량제 봉투(10L)로 보상하는 ‘통합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민들의 참여에 보답하고 재활용도움센터 이용을 활성화해 재활용 가능 자원이 대폭 회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매월 넷째 일요일에는 1kg에 10ℓ 종량제 봉투 10매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한 지구의 날(4월 22일)과 환경의 날(6월 5일) 등 환경 관련 기념일에도 같은 이벤트가 진행된다.

재활용 자원 1kg 이상은 종량제 봉투 10매가 지급되며, 2kg부터는 1장씩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 1일 최대 15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확한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재활용 도움센터에 별도 시행 안내문을 비치할 예정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연동서 아라동 가는 길 편해진다

한북로~하늘채가든 도로확장
47억원 투입 2023년 개통 목표

제주시는 연동과 아라동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한북로~하늘채가든(L=300)’ 도로확장사업을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노선은 1976년 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돼온 도로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에 사업이 이뤄진 것이다.

앞서 제주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보상비 21억원을 투입해 78% 보상 협의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올해 내로 마무리 할 예정이다.

공사규모는 전체구간 1820m 중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일부구간으로 연장 300m, 폭 25m로 왕복 4차로다. 총 사업비는 47억원(보상비 30억·공사비 17억)으로,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송은범기자

시원한 물줄기에 모두 씻겨나갔으면… 30일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시 도로 곳곳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시 “새 간판 줄게, 헌 간판 다오”

4월 21일까지 지원사업 공모
39개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제주시는 노후 간판 교체 및 신규 제작·설치비를 지원하는 ‘2021 옥외광고 소비 쿠폰 지원사업’을 다음달 21일까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비로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옥외광고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9개소(보조율 70%)에 대해 개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는 코로나로 실질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우선순위는 특별피해 집합 금지 업종, 특별피해 영업 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제주형 방역 조치를 이행한 피해업종, 그 외 일반업종 순이다.

각 순위별 동점자가 발생할 때에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에 따른 일시적 영업 정지 일수가 많은 업체, 매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업체순으로 실질적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배려한다.

접수는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방문 접수(주말·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로 받을 예정이다.

지원서류는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서식을 이용해 작성 가능하며, 소상공인 증빙서류인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는 별도 홈페이지(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후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23일 제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유선 연락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